



# 고전의 여성주의적 재해석 — 숨겨진 목소리를 다시 듣는 방법

홍인숙의 『열녀烈女× 열녀烈女—여자는 어떻게 열녀가 되었나』,  
서해문집, 2019

황인순

인천대학교 인문학 연구소 학술연구교수

## 1 열녀 담론의 해체적 읽기

지금, 현재, 열녀라는 용어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그 옛날 언젠가의 이야기 속에나 있는 용어같기도 하다. 그렇다면 열녀가 아닌 여성이라는 용어의 다층적인 의미는 살아 있는가. 여성이라는 용어는 매우 일반적인 개념이자 용어이면서도 그 자체로 어떤 이데올로기나 신화의 지표인 것은 아닐까.

홍인숙의 『열녀烈女×열녀烈女—여자는 어떻게 열녀가 되었나』는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글이다. 책은 크게 1부와 2부로 구성되어 있다. 유향의 『열녀전烈女傳』을 세밀하게 분석한 1부와 한국의 열녀 관련 서술을 통시적으로 분석한 2부이다. 유향의 『열녀전』에서 최초로 사용된 열녀란 용어가 애초 나열하다는 의미의 열녀(列女)로 시작된 것이란 서술은 그 자체로 발견이다. 지금 현재를 기점으로, 왜곡된 열녀상 혹은 여성상이 사라져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착되어 온 것이라는 의미이며 가부장제의 강화와 왜곡의 역사를 암시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열녀(列女)와 열녀(烈女) 개념 사이의 시간적·공간적·문화적 간극을 규명하고 열녀(烈女) 담론과 그 재현이 결국 현대의 여성과 어떻게 관계맺는지를 예들러 묻고자 한다.

이 책에서 가장 흥미로운 지점은 여성들의 드러나지 않은 목소리를 어떻게 읽어내어가는지에 대한 저자의 시선이였다. 권력관계는 담론의 장을 어떻게 점유하는가로부터 드러난다. 말할 수 있는가, 혹은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가는 권력의 유무에서 기인하기 때문이다. 유향의 『열녀전』에서 저자는 열녀전을 기술한 가부장적 시선과 여성들의 실제 삶에서 기인한 균열을 포착한다. 단선적인 지배 이데올로기로는 총체적 삶의 모습을 포괄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강력한 담론의 지배 아래에서도 삶의 목소리들은 그 틈새를 따라 발화된다. 저자는 그 목소리들을 포착하여 고전과 담론의 재해석을 시도한다. 조선전기로부터 후기에 이르는 『열녀전』들을 통해서 저자는 여성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동시에 여성의 목소리가 혼재된 텍스트들을 수집한다. 그나마의 수절이야기로 시작하여 순절이야기로 완료되는 이 지극히 폐쇄적인 열녀 이데올로기는 그 안에 여성의 목소리를 가두고 감추고 윤색한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가장 강력한 가부장적 담론 아래 기술된 조선 후기의 열녀전 속에서도 희미한 틈새를 비집고 나오는 작은 목소리들은 여전

히 존재하며 그 목소리를 들어주는 것이 저자의 몫이다.

## 2 목소리의 발견—서사화된 열녀 전형과 여성 삶의 균열로부터

책의 1부는 전한 말의 유학자였던 유향이 BC 32-7년경 집필한 것으로 알려진 『열녀전』을 대상으로 한다. 104명의 여성들을 7가지 분류로 묶어 기술한 이 책은 그러므로 가부장제의 조력자로서 여성들을 기능화, 대상화하여 인식하는 시선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은 ‘열녀(列女)’를 다루고 있으므로 범주의 전형성 뿐 아니라 삶의 비전형성 역시 찾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를 위해 저자는 텍스트에서 유향이라는 남성 편찬자의 시각과 의도를 분리하고 그의 의도가 후대에 미친 역사적 영향력의 향방을 가늠하며 궁극적으로는 유향의 의도를 초과해서 드러나고 있는 여성 인물들의 힘과 당대 현실의 구체성을 읽는(25쪽) 충실한 다시 읽기의 작업을 수행한다.

유향의 『열녀전』에 대해 저자는 여성을 ‘조력자적 여성’으로만 대상화하는 과정이므로 “주인공은 사실 ‘여성’이 아니라 ‘여성을 매개로 한 가부장제의 확립 과정’”이라고 요약한다.(33쪽) 특히 남성의 어머니로서, 남성의 아내로서만 평가된 1장과 2장은 그 전형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 이렇게 납작하게 구성된 이야기 속에서도 저자가 읽어내는 것은 서사화된 여성 전형 너머에 있는 삶의 실재다. 유하혜와 검루의 아내는 남편을 깨우치는 현처란 이유로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지만, 주체적이고 지혜로운 사유를 가진 존재로서도 독립적 의의를 드러낸다는 것이다. 『열녀전』이 단순히 아내라는 여성의 ‘효용’을 제시하는 데에 머무른다고 해도, 다시 읽기를 통해 서사화된 여성들의 ‘언어’를 통해 추론되는 존재로서의 의미를 환기한다.

따라서 가장 흥미로운 분석이 드러나는 것은 5장과 6장이다. 저자는 〈절의전〉이 “윤리적 주체로서의 여성상을 제시”(114쪽)하지만 “남성 가부장이 위기에 빠졌을 때 여성의 지혜와 능력이 발휘되는 것으로 허용”(144쪽)된다고 지적한다. 그러한 관점에서 5장과 6장은 여성들의 공적 발화 가능성을 표상한다. 가부장으로 대표되는 사회적 공적 제도와 윤리가 특정한 위협에 직면했을 때 여성들의 판단과 능력은 그 공백을 메운다. 가부장의 무능은 기실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건이고, 여성들은 지혜로운 조력자로서 이 사건들을 보완하는 것으로만 보이지만, 결국 사건 해결의 실마리는 공적 과정에 투입된 여성의 식견을 통해 가능하다. 남성의 목소리를 통해 수행되는 공적 과정에서 여성의 존재란 가시화되지 않지만 그 뒤편에 놓인 실재를 재확인하는 것이다.

『열녀전』 여성 분류의 전형성이 지적되지만 실제로 이 범주들은 남편을 따라 죽은 여인들로만 환원되는 조선 후기의 ‘열녀(烈女)’에 비하면 훨씬 다채로운 형상을 지니고 있다. 4장 〈정순전〉은 절개를 지킨 여성에 대한 기술이지만 『열녀전』에서는 일곱 가지 여성 부류 중 하나일 뿐이다. 그러나 조선, 특히 후대로 넘어온 이후에는 그것만이 ‘열녀(烈女)’의 총체이자 여성의 총체로서 인식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저자는 그러므로 이 부분을 후대 열녀(烈女)전의 원형으로 인식할 뿐만 아니라 남성 중심의 여성적 윤리가 아직은 견고하게 구축되지 않았던 현실의 반영(111쪽), 즉 이데올로기 확립의 전단계로서 이해한다.

그렇지만 『열녀전』의 한계는 결국 7장에서 보듯이 욕망을 가진 여성에 대해 오래된 불안과 견제를 드러낸다는 점에 있다. 그러나 7장을 읽어내는 과정에서 저자는 삭제된 배경을 복원하면서 여성 삶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를 시도한다. 요부로만 묘사된 헌공의 비 여희에 대해 이민족 출신의 공물로 바쳐진 여성, 장성한 태자와 왕자 사이에 어린 아이를 둔 처지였다는 점을 환기하고 강력한 가부장적 권력 다툼의 한복판에 있던 여성이 어떤 행위를 할 수 있었겠는지를 되묻는다. 또한 역시 희대의 요부로만 불리는 하희의 욕망 뿐 아니라 마음이 어디로 향했는지에 대해서도 역시 되묻는다.(170쪽) 이러한 해석은 붓끝으로 빼대만을 남긴 여성의 형상에 피와 살을 돌게 하는 과정으로 의미가 있는데, 역시 속박된 신체로 대표되는 조선 후기 열녀 담론에 반하는 해석 시도에 관한 일종의 유비이기도 하다.

### 3 목소리의 복원—관습적 담론의 장을 가로지르는 다른 목소리

드디어 열녀(烈女), 그중에서도 순절 열녀로 향하는 조선시대 열녀 담론을 다루는 2장은 어쩌면 논의의 핵심이다. 저자가 지적했듯이 송시열을 중심으로 한 유학자 혹은 사상가들로부터 나온 열녀 담론의 발화는 전형적인 목소리의 지배이

다.(181쪽) 1장에서 저자는 텍스트와 콘텍스트의 일방적인 포획에도 살아남은 여성 삶의 입체성을 지적했으며 그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텍스트의 일관된 결을 뚫고 나오는 여성의 목소리를 기꺼이 들었다. 2장에서 저자는 지배적인 목소리에 반하는 또다른 지식인의 목소리들, 그리고 다른 방식의 말하기를 빌어 이루어지는 목소리들, 또한 비로소 여성 스스로 주체가 되어 내는 목소리들을 소환하면서 열녀 담론을 가로지르는 또다른 담론의 장을 복구해 낸다.

저자가 열녀에 대한 담론적 강박의 근원으로 지적한 것은 사회역사적 배경이다. 병자호란을 중심으로 조선사회를 둘러싼 전쟁과 침탈, 지배와 착취의 체계모니가 비뚤어진 열녀세우기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다.(176-177쪽) 가부장제의 정당성은 논외로 하고 그 제도가 사회 내에서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것이 적어도 이에 귀속된 구성원들, 여성을 필두로 한 가부장 ‘하의’ 구성원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전쟁을 통한 혼란은 이러한 권력의 무기력을 명백하게 드러내는 사건이었고, 빼앗긴 권위를 되찾기 위해 미봉책으로 약자였던 여성들을 제물로 삼게 된 것이다. 특히 “조선 후기 죽음을 택하는 열녀들이 양산되었지만 실제 ‘죽음’에 이른 여성들은 막다른 골목에 있었던 양반 여성”(234쪽)이었다는 사실은 이데올로기와 계급적 착취가 뒤섞인 여성 억압의 실체를 드러낸다. 폭력적인 행위와 이데올로기는 결국 강자로부터 약자에게 흐른다. 그렇기에 사회적 제도의 결핍에서 이와 같은 실질적·이데올로기적 착취가 일어나고 있음을 지적하는 것은 매우 유의미하다. 그 통시적 흐름을 살펴보는 것은 현대에도 여전히 이어지는 현대의 여성 억압을 확인하는 과정이며 신자본주의적 침탈이 만연한 현대 사회에서 이데올로기일 뿐 아니라 계급적 착취이기도 한 여성 억압의 심층을 암시하기 때문이다.

조선 전기의 사회가 개가를 하는 여성들을 비교적 동정하는 풍토였다면 전쟁을 기점으로 왜곡된 것이 후기의 열녀 담론이다. 10여 편에 불과한 17세기 열녀전에 비해 200여 편이 수집되며 수치적으로도 폭발적으로 증가한 조선 후기의 열녀전은 그 서사가 전형적인 패턴을 따르며 따라서 이 시기의 여성들을 매우 협소화되고 엄격한 방식으로만 정의하고자 한다.(228쪽) 저자는 이에 대해 “열녀가 되는 방식이 ‘죽음’이라는 최후의 방식 혹은 그에 준하는 잔혹한 신체의 훼손과 희생으로 고정되었다”(227쪽)고 기술한다. 17세기를 기점으로 라해봉의 『이

열녀전』등으로부터 폭력성의 재현과 이에 상응하는 정절—저항의 가치 평가가 시작되며 이것이 조선 후기 폭력적 열녀 담론으로 이어진 것이다.(227쪽)

그러므로 저자가 가장 문제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죽음의 이데올로기”이자 “죽음의 레퀴엠”이라 재차 지적한 조선 후기의 열녀 순절 담론이다.(187쪽) 3장을 중심으로 하는 죽음과 신체 훼손의 강요는 참혹하다. 열녀(列女)의 의미망이 열녀(烈女)로 좁혀지는 과정에서도 열을 수행하는 범주와 행위들은 다층적일 것이다. 그러나 그 행위조차 죽음과 신체훼손이라는 하나의 지향으로 강요되기 시작한 풍경을 저자는 “강요된 자결의 풍경”(226쪽)이라고 냉소한다. 특별히 이 시기 죽음을 강요받은 여성들이 한미한 양반이라는 속박 아래 있었음을 환기한다면 “죽음을 간절히 원하는” 여성으로 그려지며 그 안에서도 “가족을 배려하는 티 하나 없는” 여성의 형상은(236-257쪽) 여성의 죽음을 통해 재구될 가부장적 권력을 기다리는 무기력한 가부장의 변명을 대리한다. 따라서 이 시기의 열녀전은 자연스럽게 ‘원귀’를 떠올리게 하는 측면이 있다. 아랑을 위시한 원귀 설화에서, 죽임을 당한 원귀들이 피를 뚝뚝 흘리는 형상으로 나타나 들려주고 싶어하던 ‘목소리’와 ‘소망’이 굳이 삶의 복원이 아니라 명예의 복원이었음을 환기한다면 더욱 그렇다.

그렇기에 4장부터 저자는 주류 남성이 아닌 다른 목소리가 개입된 열녀 담론을 제시하려고 한다. 아무 죄의식 없이 희생되던 소수자들을 대리하여 박지원을 비롯한 비주류 지식인들이 목소리를 낸 것은 체제 비판적인 시각이 반영되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물론 생과 사의 문제를 직접 겪고 있는 여성 주체 대신 다른 이들의 목소리가 먼저 발화될 수 있었다는 것은 한계이겠지만, 어떠한 반성도 거치지 않고 거대신화화된 열녀 담론에 대해 반성적 움직임이 있었다는 점은 복기할 만하다.

5장부터 저자는 조금씩 여성 주체들의 목소리가 더 섞여 들어가는 다양한 장르들 속 열녀 담론을 소개한다. 한문 야담과 구전설화가 그것이다. 물론 야담과 설화가 항상 전복적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야담은 애초 구비문학적 특징을 가지므로 그 편자인 양반의 시선으로 기술된다고 해도(283-4쪽) 비일관적이고 다원적인 목소리를 내게 된다. 물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여성적 목소리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야기 속의 소망, 냉소, 혹은 풍자 등에서 여성적 목소리가 드러나

는 것은 필연적이다. 개가에 관한 몇 가지 이야기와 유언에 관한 이야기들은 죽음과 신체훼손만이 열녀 혹은 여성이라고 강요하는 풍토 속에서 다른 가능성을 암시한다. 몰래 개가를 중심으로 한 이야기들에 대해 저자는 금기를 깨뜨리는 야담적 상상력(290쪽)이자 거울급부 판타지(294쪽)이라 지적한다. 상상의 세계를 소망의 재현이면서 현실의 뒷모습으로 이해한다면, 죽음 아닌 다른 선택항역시 어떤 여성들에게는 있었고, 재력과 권력이 있는 여성이라면 죽음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었다는 의미가 된다. 죽음이 아닌 다른 삶에 대한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된 것이 아니었음에도, ‘강요’되었던 죽음은 누구를 위한 선택일까. 한 가문의 재구를 위해 여성의 죽음을 필요로 했던 가문의 구성원들 뿐 아니라, 사회 속에서 여성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다수의 가부장 구성원들이 그 죽음을 제물로 어떤 사회를 꿈꾸고 있었는지 묻게 된다.

6장의 설화 역시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설화는 야담과는 달리 편자 대신 복수(複數)의 구술 주체가 있으므로 내용의 변이가 어떠한 목소리의 변형으로부터 야기되는가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저자는 열이라는 관습을 다시 묻는 열녀 시험형 설화와 개가열녀 이야기로 알려진 열불열 설화를 읽어내려 간다. 전자가 신화화된 ‘열’이 무엇인가에 대해 회의적으로 묻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열을 칭송하며 가문과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열녀의 존재(308쪽)에 대한 기대를 놓지 않고 있다는 저자의 지적은 온당하다. 그렇지만 더불어 이 이야기는 여성의 정절이란 결국 자발적인 의지이며 틀과 관습으로 여성을 속박한다고 가능한 것이 아님을 강조하는 것으로도 읽힌다. 또한 열불열 설화는 명백히 희생의 주체인 여성이 스스로 모든 피를 손에 묻히고 죄책감을 짊어진 채 자결함으로써 가문과 남편을 위한 이익만을 남기고 사라지는 이야기(318쪽)로 평가된다. 구비설화이면서도 가장 남성 중심적인 시각에서 구성된 이야기 혹은 그 질곡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야기인 것이다.

크게 전복적인 것처럼 보이지 않는 야담과, 이어 설화 읽기를 마치고 저자는 열불열 설화를 여성 제보자가 구연할 때의 맥락을 관찰한다. 여성 제보자의 이야기에서 열불열 설화는 죽음으로 귀결되지 않고 행복한 결말로 마무리되거나 혹은 ‘이상한 이야기’로 폄하된다. 이는 구비설화의 ‘이본’으로서, 여성의 목소리로 전승되기에 가지는 특징이 될 것이다. 설화에는 당연히 여성의 목소리가 혼재되



어 있으나 이를 완전히 분리해내기란 어렵다고 했다. 그런데 저자는 구술 주체에 관한 고찰을 통해 여성의 말하기가 들리는 장(場)을 찾아낸다. 구비설화의 전승, 그것도 꽤 현대적인 시기의 전승에서도 어떤 의문조차 없이 전승되었던 것처럼 굳건했던 열 담론은 그제야 명백한 균열을 맞닥뜨리게 된다. 그간 어떤 틈새에 숨겨진 목소리를 애써 길어 올리던 저자의 분석이 마지막 지점에서 비로소 가장 표면의 목소리를 만나게 되었기 때문이다.

#### 4 고전의 현대적 읽기와 여성주의적 가능성

2부의 마지막이 그래서 여성의 온전한 목소리로 기술되는 것은 매우 인상적이 고도 의미있는 완결이다. 여성이든, 열녀(列女)든, 열녀(烈女)든 여성 주체들은 언제 어디서나 말하고 있었으며 들어주는 사람이 있는 한 그 목소리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선언인 것이다. 저자는 신씨부의 한글 유서를 통해 열녀전의 허구성을 재확인하며 처음으로 여성 주체의 긴 이야기를 듣는다.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이나마 남겨진 말을 하는 것이 유언의 기능이겠지만, 한문야담의 유언에서조차 여성들은 조금 다른 소망과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이를 서둘러 봉합하곤 한다.(282쪽) 그러나 7장의 유서는 마지막으로 가장 명확하고 솔직한 여성의 목소리를 전면적으로 내세운다. 인간의 삶은 서사화될 수 있지만 흠결 없는 통합체로는 환원될 수 없으며 모든 삶의 주체에게 이것은 동일하게 적용되는 명제이다. 당연히 여성의 삶도 그렇다. 여성은 정절과 의리만을 이야기하는 주체가(348쪽) 아니다. 모든 사람이 모든 순간에 인과 의를 위한 존재로 기능하는 것은 아니라면 여성 역시 마찬가지인 것이다. 모두에게 삶이 축복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여성에게 열을 위한 죽음이 축복일 리도 없다. 어떤 삶은 그저 단순한 실재이고 흔적이기도 하다. 따라서 저자는 이 긴 연구의 마지막을 “누훈”의 환기를 통해 마무리한다. 누구를 위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거대 담론을 추구하는 삶만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며 그저 숨쉬고 울고 웃는 순간이 모두 삶의 총체를 담고 있다. 그러므로 현명한 어머니도, 현숙한 아내도, 정절을 지키는 미망인도, 충실한 딸이 아닐지라도, 여성은 그저 흔들리고 말하는 순간의 존재로도 의미를 가진다.

BC 30년을 전후하여 생성된 열녀전으로 시작하는 이 연구는 그렇지만

2020년을 목전에 두고도 많은 여성들이 열(烈)과 속(俗)이라는 프레임 하에 평가 받고 있으며 그로 인해 여전히 죽음으로 내몰리는 현대 한국의 풍경을 환기한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고전의 현대적 읽기란 어떠한지 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보이거나 들리지 않는 심층을 가시화하는 본 연구는 비교적 대중적인 문체로 기술되었으나 사실은 엄정한 학문적 접근을 토대로 하는 읽기의 방법론에 기반을 둔다. 따라서 결국 고전의 현대적 읽기란 ‘읽기’의 적극적이고 면밀한 재검토를 통해 가능한 것이고, 이와 같은 지향은 고전 연구자, 특히 후속 연구자들에게 남겨진 과제이자 본이 아닐까 생각한다.